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환율은 직전영업일 대비 11.60원 하락한 1,058.60원으로 마감
------	--

이날 환율은 美 재무장관 악달러 환영 발언에 직전영업일 대비 11.60원 하락한 1,058.60원에 거래를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美 재무장관의 다보스 세계포럼 연차총회서의 달러 약세 선호 언급으로 인해 글로벌 약세폭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ECB의 매파적인 통화정책 기대로 유로-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올랐으며 장중 코스피가 새해 첫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여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이 이어졌고 환율은 3년 2개월만에 장중 최저치인 1,057원대까지 저점을 낮췄다. 오후 중 외환당국으로 추정되는 스무딩오퍼레이션으로 1,060원대로 반등하였으나 이내 달러하락세에 밀려 1,058.6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마감시전의 원-엔 재정환율은 전일 대비 0.02원 하락한 973.38원에 거래되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065.00	1065.60	1057.90	1058.60	1061.7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80.76	981.03	965.20	969.06	
금일 전망	美 트럼프대통령의 강달러 선호발언으로 1,060원 중후반대 반등 전망				

금일 환율은 美 트럼프대통령의 강달러 자신감발언으로 1,060원 중후반대로 반등 할 전망이다.
 전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전영업일 종가 보다 7.60원 오른(스왑포인트 고려)한 1,065.55원에 최종 호가되었다. 어제 장 마감후, 다보스포럼에 참석중인 美 트럼프대통령이 CNBC 인터뷰에서 강달러 자신감발언 및 최종적으로는 달러 강세를 선호한다는 언급에 전일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급격히 하락했던 달러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TPP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며 달러화는 다시 1,060원대로 오른 후 레인지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ECB 통화정책 회의 후 유로화 추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단은 제한 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062.80 ~ 1071.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753.77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7.60원 ↑ ■ 美 다우지수 : 26392.79, +140.67p(+0.5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4.7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5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